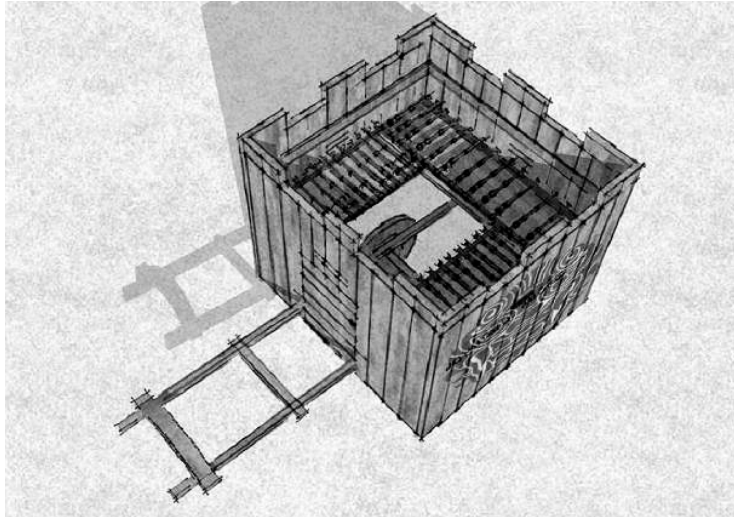


# 임진왜란 무기 '화차' 420년만에 복원

### 조선군 2300:3만 왜군 '행주대첩' 대승 기여 장성출신 망암선생 400주년 기념 발사 시연



장성출신 조선 중기 문신인 망암 변이중(1546~1611) 선생이 제작한 화차(火車)가 420년만에 복원된다. 화차는 임진왜란의 전세를 뒤바꾼 행주대첩에 큰 기여를 한 무기다. 23일 장성군과(사)봉암서원(이사장 변은섭)에 따르면 오는 28일 장성 동화면 육군포병학교 훈련장에서 유관기관 단체장과 포병학교 군인, 문종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원화차 발사시연회를 개최한다.

봉암서원은 망암선생 서거 400주년을 맞아 지난해부터 망암화차 복원 계획을 세워 전남도와 장성군의 지원으로 전쟁기념관 박재광 박사 등 고구기 전문가들의 자문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 화차를 복원했다. 이에 지난 10월 중순에 복원된 망암화차는 국방연구소와 육군기계화학교 진원 사격장에서 최장 300m의 목표물에 정확히 적중하는 실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화차의 정면에 장착된 14개의 승자총통은 화약심지로 연결돼 3초 간격으로 발사되며, 승자총통 한 개에서 발사된 탄환은 15알로 40초 동안 210여 알의 탄환이 발사된다. 변은섭 이사장은 "420여 만에 고증에 의해 복원·제작된 화차의 실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행주대첩에서 선생이 세운 공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주대첩은 1593년 2월 권을 장군 휘하의 조선군 2300명의 병력이 왜군 3만명과 싸워 대승리를 거둔 전투로 '임진왜란 3대첩'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때 변이중 선생이 제작해 보내온 40량의 화차는 왜군 공격의 기선을 제압,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 강진 '정보화마을' 을 2억 매출

### 전년보다 3배 증가...48개 마을 평가 '장려상'

올해 강진군 정보화마을이 역대 매출을 올려 화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leen 정보화마을과 작천 황금담 정보화마을은 온오프라인 판매실적이 1억8000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700만원에 비해 3배가량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해 전남도에서 평가한 48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수상은 두 정보화마을이 마을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들 모두가 서로 합심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키고, 농·수 특산품 판매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확실한 품질과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액이 늘고, 도농간의 자매결연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황금초를 먹여 자연 방사한 황금담과 1급수에서 생산되는 토하젓, 친환경 딸기, 김장철을 맞아 태양 초 고추 및 절임배추 등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강진군 박희곤 정보통신팀장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3배 정도 실적이 올라 놀랐다"며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므로,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화마을에서는 가을김장철을 맞아 절임배추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며, 구입한 절임배추를 무료로 배송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정부합동 민원행정 평가 광산구 '국무총리상'

광주 광산구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11년 정부합동 민원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전국 232개 지자체 및 중앙부처가 올 한해 추진한 민원 행정 시책과 처리 실적 등을 평가받는 자리다. 이번 평가에서 광산구는 민원과 관련하여 신속성, 관련 제도 개선 및 과제 발굴, 서비스 만족도, 민원관계인 권익 및 사기 제고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광산구는 ▲매주 월요일 밤 9시까지 운영하는 '야간 민원실' ▲법률 자문을 돕는 '무료 상담실' ▲온라인포탈 '민원24' 전용창구 운영 등 구민 중심의 민원 행정 제도를 시행해왔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고사리 손으로 깎어요" 본격적인 겨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무밭에서 유치원생들이 무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무는 배추·고추와 함께 3대 채소로 손꼽힌다. (담양군 제공)

# 국민연극 '뽕바' 강진 온다

### 29~30일 아트홀 대공연장

국민연극 '뽕바' 탄생 30주년을 맞아 새롭게 재구성해 각색한 연극 '뽕바'가 오는 29~30일 이틀간 강진 아트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려진다. '뽕바,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20개 이상의 구전민요와 각설이 타령, 익살스러운 몸짓을 통해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담아낸다. 연극 '뽕바'는 1981년 첫 선을 보인 이래 2009년 6월 5000회 공연을 돌파

하며 '국내 최장기, 최다공연,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해 한국 기네스북에 등록된 바 있다. 또 1987년 미국 5개 도시 순회공연, 1993년 일본, 1997년 광, 호주 등 해외공연을 펼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적인 우리나라 대표 연극임을 증명했다. 한편 강진아트홀은 다음달 8~9일 이틀간 대공연장에서 힙합, 재즈, 현대무용,브레이크 댄스 등으로 이뤄진 '사랑하면 춤을 춰라'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

# 담양서 '전국 국악 대전'

### 27일 문화회관

담양군에서 '환경 보호'와 '국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전국단위 국악대전이 열린다. '제2회 담양 환경소리 축제 전국 국악대전'이 오는 27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사)대한 전통문화예술협회와 (사)영산강·섬진강살리기 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국악대전은 창작, 관소리, 무용, 가야금 병창 등 기악과 사물·풍물을 포함한 연희 등 5

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 관소리와 무용 부문 경연은 명창부·명무부·일반부·신인부·학생부로 나뉘며, 기타 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뉘어 경연을 펼친다. 참가자격은 전국 초·중·고 재학생(학생부)과 대학생 포함해 19세 이상 전국 남녀(일반부)이며, 명창·명무 부문은 22세 이상 남녀이다. 신인부의 경우 국악 관련학과 전공자를 제외하고 연령제한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061-363-8481)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 전 북

# 전북 학생인권 조례안 부결

### 도의회 "교권 존중방안 등 실정에 맞는 보완책 필요"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전북 학생인권 조례안'과 '전북 교원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안'이 23일 부결됐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28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2건의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교사의 교권도 존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북의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많은 학습권 침해와 교사의 교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 도의회에 전북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다. '학생인권 조례안'은 5장 51조, 교권조례안에는 16조로 구성됐다. '학생인권 조례안'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원 운영 근거가 담겨 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차에 대한 검토와 추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의안 상정을 보류해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위치 일부개정 조례안', '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운영계획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음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부결된 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가을 가는 길...겨울 오는 길 소설(小雪)인 23일 국립공원 덕유산에 15cm의 첫눈이 내려 장관을 이뤘다. 이날 오전까지 내린 눈은 설천봉에서 정상인 황적봉(해발 1416m)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15cm의 적설량을 보였다. /연필뉴스



# 순창 강천산 年 방문객 100만 돌파

순창 강천산 연간 입장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순창군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6년간 관광객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단풍시즌을 끝으로 공식통계상 처음으로 관광객 100만명을 넘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입장객 67만명, 입장수입 5억8000만원에 비해 20일 현재 101만명의 입장객과 8

억275만원으로 5년전보다 무려 입장객 50.7%, 입장수입 37.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군은 수려한 산세와 음이온이 다량 함유된 폭포를 비롯한 맨발 산책로 등 차별화된 볼거리로 인해 전국 수화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 노인단체 관광객 증가 등을 꼽았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복적'

### 개관 50일 5만명 돌파

지난 9월 30일 개관한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탐방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개관 50일 만에 관람객 5만명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이처럼 많은 방문객이 찾는 이유는 근대문화는 전시주제의 차별화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120명의 애환심이 기반이었다는 평가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군산 해양물류 유통의 역사를 소개하는 '해양물류 역사관'을 비롯 ▲1930년대 군산에 있었던 11개의 건물을 재현해 체험과 전시를 병행하는 '근대생활관' ▲일제강점기 농민저항을 주제로 한 '육구 농민항쟁관' ▲정동기 유적 전시장 등 상설전시관 4관 ▲비상설전시관 4관 등 다채로운 8개의 전시실로 꾸며져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단 신

## 전주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공모

전주시는 다음달 23일까지 시민과 시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분야는 크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청·중년층 실업해소를 위한 전통

문화·관광·예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전주·완주 상생을 위한 지역 협력형 일자리 분야이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에비사회적기업 일자리 분야 ▲마을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하림, 익산 '행복마켓'에 1200만원어치 닭 기탁

창사 25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육가공업체인 ㈜하림이 23일 1200만원어치의 닭 제품을 익산시의 '행복나눔마켓'에 기탁했다. 하림은 고품질, 초신선 닭고기 공급에 따른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상 3연속 수상을 기념해 이 같은 전달식을 가졌다.

기탁식은 23일 시장실에서 이한수 시장을 비롯해 하림 이문용 사장, 김윤배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한수 시장은 "지역사회에 되돌려주는 기업의 나눔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남원 '흔불 작은 도서관' 3주년 백일장 시상

남원시 사매면 '흔불 작은 도서관'이 개관 3주년 기념행사로 개최한 백일장에서 중등부 김나훈 학생(용복중)과 초등부 유준호 학생(사매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다독자 부문에서는 용복중 정찬웅 학생이 학생부 1월1차 지

했으며, 황인원(월평리 수월마을)씨가 일반부 1위를 수상했다. '흔불 작은도서관'은 모든 공모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전달했으며, 내년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보다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 순창군 '세외수입 증대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중인 가운데 순창군이 세외수입 증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려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다. 순창군은 '민간보조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보'를 주제로 예

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민간 보조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 확보'는 민간 보조금 등을 사업자가 고이을 상품에 정기에 탁 관리하도록 지도해 이자수입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